



사람 중심으로 도시디자인 바꾼다

광주시 ‘장애없는 생활환경’ 인본디자인 시범사업

시설물 문턱 제거·경사로 개선 등 민간주도형으로

광주시가 사회적 약자계층을 배려한 ‘장애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주내용으로 하는 인본디자인 사업을 추진하기로 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시는 민선 6기 시정 목표 중 하나인 ‘모든 사람이 더불어 사는 행복한 광주 만들기’ 사업으로 인권도시 광주만의 독창적인 도시디자인을 만들어 내기로 했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인본 디자인 시범사업’ 보조사업자로 ‘(사)장애 없는 세상만들기’를 확정하고, 이번 달 내로 사업대상 시설물을 선정하는 등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인본디자인은 활발한 인적교류와 자유로운 시민 활동 등을 통해 사람과 삶의 문화적 표출, 도시 활력 창출 등에 기여하는 ‘사람 중심의 디자인’을 일컫는 말이다.

시는 이번 인본디자인 시범사업을 통해 각 시설물의 문턱 제거, 출입구 및 경사로 등 접근로 개선, 휠체어 접근 가능 화장실 확충 등을 비롯한 인도 턱 낮추기 및 장애물 없애기, 비울때 미끄럼 사고가 빈

번한 시각장애인 보행 표지판 교체 등 시민생활 속에서 불편한데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다양한 시설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광주시는 특히 이번 인본디자인 사업만큼은 기존 일방적인 행정주도 방식을 탈피, 행정은 민간비영리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하고 사용주체인 주민과 전문가가 협력해 공공문화 활동에 직접 참여토록 하는 등 실제 이용자인 민간주도형으로 이끌어 가기로 했다.

시는 또 시민과 학생, 전문가가 함께하는 인본디자인교육, 장애체험활동, 특별강연회 등을 통해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확산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부터는 인본디자인에 대한 사업 규모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광주시의 한 관계자는 “주민과 전문가가 주축이 된 인본디자인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시민시장 시대’에 맞는 시민중심의 도시디자인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5·18민주화운동기록관 ‘호응’

개관 1개월만에 어린이·외국인 등 5800여명 방문

기록관, 콘텐츠 다양화·문화전당 등 연계 코스 계획

광주시 동구 금남로 옛 가톨릭센터에 1개월 전에 문을 연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이하 ‘기록관’)이 5월말까지 방문객 수 5810명을 돌파하며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5·18민주화운동 기록물 8만여점을 보존·관리하는 기록관에는 일반인과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 외국인 등 다양한 지역과 연령층이 개인·단체로 하루 평균 350명이 방문하고 있다.

방문객들은 “기록관을 통해 그동안 다양한 왜곡으로 인해 잘못 알고 있던 내용을 바로잡을 수 있게 됐고, 많은 점을 배우고 간다”, “과거를 통해 배우고 과거의 교훈을 통해 나아가겠다”, “5월의 광주를 결코 슬프지만은 않은 자랑스러운 세계화의 운동임을 기억하겠다” 등 관람 후기도 남겼다.

기록관은 앞으로 5·18 관련 기관·단체들과 협력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전시콘텐츠를 구성하고, 시 관련 부서와 협의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양림동 역사문화마을과 연계하는 광주의 불거리 코스를 마련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기록관에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주요 사건들을 사실적으로 재현하고 희생자들의 유품, 각종 인쇄물은 물론 세계 인권기록 유산이 전시돼 자유와 정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배우고 공감하는 교육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전시관과 3D 애니메이션 상영관, 1만여권의 도서를 비치해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책을 읽을 수 있는 시민친화적인 공간인 ‘작은 도서관’도 운영하고 있다.

이용 시간은 평일과 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관람료는 무료다.(매주 월요일은 휴관) 문의 062-613-8294.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전남대병원과 광주시의사회·광주북구보건소 직원들이 9일 프로야구 경기가 열리는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메르스 예방 캠페인을 벌였다. <전남대병원 제공>

전남대병원,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민관합동 홍보활동

전남대병원(병원장 윤택림)이 9일 민관합동 메르스 예방홍보활동에 나섰다.

이날 전남대병원은 광주시의사회(회장 홍경표)·광주북구보건소(소장 김은숙) 등과 함께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 인근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메르스 예방 캠페인을 펼쳤다.

전남대병원은 메르스로 인한 사회적 불안과 질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메르스는 예방할 수 있다’는 주제로 지역민들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자 대내외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이날 캠페인에는 윤택림 병원장·홍

경표 회장·김은숙 소장을 비롯한 의료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들을 대상으로 메르스 예방법 등을 설명했다.

가족과 함께 행사에 참여한 직장인 오모(광주시 동구 계림동)씨는 “요즘 같은 메르스 비상시기에 애들이 외출 후 집에 왔을 때 손씻기를 강조해 왔는데 오늘 행사를 통해 씻는 요령을 제대로 알게 됐다”면서 “직장 동료나 친구들에게도 오늘 배운 예방요령 등을 알려주겠다”고 말했다.

윤택림 병원장은 이날 “아직까지 메

르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아 직접 홍보에 나서게 됐다”면서 “메르스가 추후에 질 때까지 어디서든 적극 캠페인을 전개할 방침이며, 확산방지도 더욱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대병원은 지난 8일 병원 1동 로비에서 환자와 내방객 그리고 병원 인근 남광주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메르스 예방캠페인을 펼쳤으며, 오는 11일에는 전남대 후문 앞에서 홍보할 계획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주도시철도공사도

메르스 방역소독 강화

광주도시철도공사는 9일 “다중이용시설인 지하철 전동차, 역사 등에 대한 메르스 방역을 강화해 도시철도 이용 시민의 안전을 확보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2주에 1회 실시하던 전동차 방역소독을 주 2회로 늘리고, 손잡이, 수직봉 등 신체 접촉이 잦은 곳을 중심으로 분무기 소독과 함께 연막 소독기로 추가 방역을 하는 등 방역 강도를 높이고 있다.

역사 시설물도 고객의 접촉이 가장 빈번한 에스컬레이터 핸드레일과 엘리베이터 버튼을 수시 소독하고 주 1회 하던 역사 방역소독을 주 2회로 늘렸으며, 각 역사 고객 서비스센터에 손세정제 등을 비치했다.

또 매일 일회용 승차권을 락스 세척 후 자외선 살균기로 건조 소독하고, 전 역사에 메르스 의심환자를 위한 마스크 등을 배치한 상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증심사·무각사에 템플스테이·전통체험관 건립

광주 도심권 사찰에 치유(힐링)를 위한 다양한 체험시설이 들어선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증심사와 무각사(사진)에 각각 템플스테이(Temple stay)와 전통문화체험관을 만든다. 템플스테이는 절에서 숙박을 하며 사찰 생활을 체험하는 것으로 최근 도시민의 힐링문화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템플스테이 전용관은 467㎡ 규모로 내년 말까지 건립되며 사업비 16억원이 투입된다. 증심사는 매년 1000명에 가까운 청소년과 외국인이 템플스테이를 다녀갈 정도로 대중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사찰이다.

다만 참여 수요는 급증한 반면 시설이 태부족한데다 프로그램을 운영할 공간마저 부족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는 템플스테이 전용관이 마련되면 도시민을 물론 외지 방문객의 이용이 크게 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등산 서쪽 자락



에 자리잡은 증심사는 조계종 21교구 본사인 송광사의 말사로 1986년 광주문화재자료 제1호로 지정됐다.

광주 도심권 대표 사찰인 무각사에는 전통문화체험관이 올 연말까지 건립된다.

2150㎡규모의 체험관은 다목적홀을 비롯한 다도, 건강강화 등이 가능한 교육관, 명상실 등이 들어서며 사업비는 3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광주시는 광주를 찾는 내외국인에게 한국의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채희종기자 chae@

경매투자! 무엇이 정답인가!

NPL과 특수경매만이 정답이다!

특수비법 배우실 분!

- NPL과 특수물건만 전문취급
- 주 1회 2시간 3개월 완성
- 1대1 실전사례 교육
- 입장 / 교육비 등 2200만원
- 단, 상담 후 본사 결정

공동투자 하실 분!

- 지분이전으로 보장
- 연 12% 이상 수익률
- 투자금 1억원 이상
- 모든과정 공개 투명처리
-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함

돈 빌려주실 분!

- 근저당으로 보장
- 연 12~20% 이자 지급
- 차용금 1억원 이상
- 1년~2년 정도 기간
- 개인신상 비밀 보장

경매 전문회사 (주)오천경매 H. 010-3605-5000

- 월산동 110-8번지, 34평
- 5층 중 2층, 첫 입주, 정남향, 신축
- 신우APT 105동옆, 즉시 입주가
- 매매가 1억 6400만원 (용자 1억 1천만원 안고)
- 전세 1억 4천만원 가능
삭월세 보 1천만원에 65만원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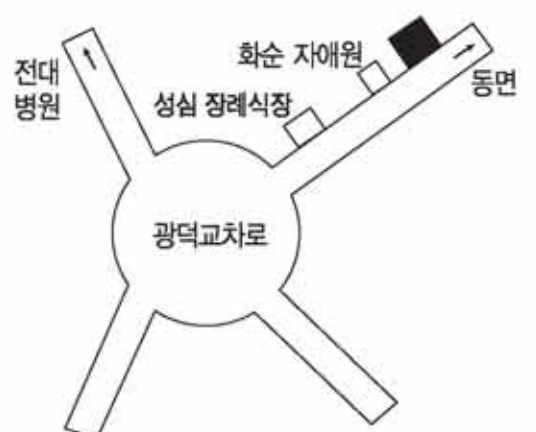
광전파크 빌라

주인직매 H. 010-3605-5000

- 월산동 110-18번지, 19평
- 5층 중 5층, 전망좋은, 베란다 있음
- 신우APT 105동옆, 즉시 입주가
- 매매가 9500만원 (용자 7000만원 가능)
- 전세 8000만원 가능
삭월세 보 1천만원에 월 45만원 가능

화순 “전원주택지”

- 화순군(읍) 다지리 산 12-7번지
- 대지 328평, 33필지 중 1필지
- 동면방향, 화순교차로에서 5분거리
- 기반시설 조성중(화순군청) 2015년 10월말 완공예정
- 매매가 1억 3천 120만원 (평당 40만원)



주인직매 H. 010-3605-5000